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9호 【루계 제25838호】 주체106(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회합을 수도 평양에서 의의깊게 진행하도록 하여주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선물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휘동지, 박태덕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리일환동지, 리철만동지, 관계부문, 과수부문 일군들, 혁신자들, 과학자, 연구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동지가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과일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나가는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친어버이의 따뜻한 정이 깃들어있으며 회의참가자들이 온 나라가 들썩하게 과일대풍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보살피시며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이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백옥같은 충정과 높은 과일생산성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여 나라의 과수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참가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대해같은 은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과학과수의 기치높이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보다 큰 실천적성과를 이룩해나갈 의지가 어려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온 나라에 과일향기가 차넘치게 할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벌가리아위원회가 10일 쏘피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벌가리아공산주의자당 위원장인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민초 민체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엄격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로씨야위원회가 13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윅토르 빼트로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4일 쓰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국제비서 마리안 꾸비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자

지금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중요전선들과 건설장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더욱 맹렬히 벌려나가고있다.

현실은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세차게 일으켜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며 온 나라에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철도운수를 빨리 추켜세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해온 올해의 투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결속하자면 앞으로 남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수송이자 곧 생산이고 건설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온 나라 각지로 물동들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모든 전선에 활력이 차넘치고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될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높이 올리는 증송의 기적소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불패성이며 사회주의전진의 기상을 백배해주는 악동의 숨결이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우리 당은 현시기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고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함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우리 당의 철도운수정책에는 철도현대화를 다그치며 수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함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철도운수발전을 추동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운수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는 여기에 생산과 수송간의 균형을 원만히 보장하여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철도운수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수송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전세대 수송전사들과 철도로동계급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불비속을 뚫고 전선으로 식량과 탄약을 제때에 실어나르던 전화의 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강의한 혁명정신은 오늘도 귀중하고 래일도 귀중하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철도를 추켜세우는것이 단순히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대사이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돌격투사, 자강력제일주의의 제헌자들인 영웅적 집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때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철도의 운영과 발전에서 기본일터는 어디까지나 자기자신들의 손에 쥐여져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당의 철도운수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지난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기간 철도수송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될수 있은것은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의 비상한 정신력에 치밀한 수송조직과 지휘가 안받침되였기때문이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수송수요와 철도의 수송능력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수송계획부터 바로세우고 수송공정전반이 치차처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철도에서 규률은 생명과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워 철도수송을 원활하게 하며 철도운영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철도현대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는것은 철도운수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철도과학기술의 발전이자 곧 철도운수의 발전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현대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자체의 기술개발력량과 설계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철도운수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새 기술연구개발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기관차들을 현대적인 교류기관차로 정신하며 철도차량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 기술적성능과 견리성, 문화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객차들과 여러가지 용도의 능률적인 중량화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온 나라에 뻗어간 두줄기 철길은 철도의 상징이며 나라의 얼굴이라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며 철길건설과 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 인재양성사업에 힘을 넣어 유능한 철도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많이 키워내며 철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누구나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국가적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이며 철도에서 걸린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알아보고 정상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과 현지단위들에서 철도의 발전이자 자기 단위의 생산정상화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철도운수발전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철도운영에 요구되는 전력을 무조건 보장하여 온 나라에 증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철도지원사업은 자기 부문과 단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선차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 누구나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나라의 재부인 철도시설물과 비품들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철도지원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철도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철도부문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철도운수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당적으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며 전시수송을 보장한 1950년대 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대중의 심장속에 심어주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5.18무사고정시전인초과운동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쟁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의 기치높이 대고조진군을 다그친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진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무기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2돐을 맞으며 많은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길주군 3대혁명붉은기 봉암협동농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정중히 꾸리고 모든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들과 뭔그루콘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 등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떠밀어주었다. 한편 유기질복합비료성형기를 비롯한 많은 농기계들을 창안도입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올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어 알곡 정보당 8t이상의 소출을 냄으로써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20여년간 자체로 농사를 지으면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리문화회관을 비롯한 10여동의 공공건물들을 개건보수하였다. 집집마다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고있을뿐아니라 1 000여㎡의 남새온실과 200여㎡의 버섯기지에서 많은 남새와 버섯을 생산하고 해마다 돼지, 염소 등 수천마리의 짐짐승을 길러 농장원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 7갱 차광수청년돌격대 당조직에서는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집단주의위력으로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조직에서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효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게 하였으며 지난 7년간 2 000여㎥의 통발과 20여t의 레루를 회수리용하는 한편 자체로 수리기지를 꾸려놓고 탄차를 비롯한 설비, 부속품들을 제때에 수리하도록 하였다. 차광수청년돌격대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기호스보호띠와 밀폐식탄차바퀴를 비롯한 1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고 코대간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지난 8월초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완수하였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인쇄회로기판시험공장 당조직에서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연구사들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동하여 다층인쇄회로기판중심맞춤방법을 연구하고 콤퓨터에 의한 검사체계를 세워 다층인쇄회로기판생산공정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공장에서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앞장섰으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평양제육기자재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한 인쇄회로기판들을 질적으로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이 나날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여러차에에 걸쳐 기쁨을 드리였다.

문덕군산림경영소 당조직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종업원들을 불리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흐름식관수체계를 갖춘 모체양묘장과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 술사이양묘장들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면서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나무심기계획을 200%이상 수행하면서도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서해갑문사업소, 신계군농기계작업소, 장강군 향하혁명사적관 등 많은 단위 당조직들에서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3대혁명의 기치높이 대중을 전민총돌격전에로 적극 추동하는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으로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운동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수천km의 배전선로 개조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력공업의 현대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결사의 정신으로 받들어온 이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120여대의 주변압기와 수천km의 배전선로들이 개조되는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력공업성과 송변전관리국에서는 단계별목표수행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이룩한 가치있는 성과들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송배전계통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시켰다.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장들에 내려가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든 문덕애자공장에서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각종 애자를 생산하여 각 도들에 보장해줌으로써 전압단계제고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력공업의 주체화, 현대화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년초부터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탈라봉은단천, 신포시와 홍원, 함주군을 비롯한 함경남도 어려 시, 군의 송배전부문 로동계급이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이들은 전력부하가 집중되여있고 도중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는 대상들에 력량과 수단들을 배치하고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도적으로 수십대의 주변압기들과 수백km의 배전선로를 개조하였다.

강원도송배전부와 산하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배전선로 개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현대화사업의 돌파구를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서 찾은 천산시송배전소에서는 새로운 차대애자설치방법, 애자삼각배치법 등을 받아들여 작업속도를 높이였으며 불합리한 송배전설비들도 정비보강함으로써 전력손실을 훨씬 줄이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운 평안남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세대들의 전력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현대화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순천, 안주시와 룬덕, 북창군 등의 송배전소로동자들은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절선변경에 의한 주변압기개조방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공정기일을 훨씬 단축하였으며 자재를 1/10로 절약하였다.

평양시, 황해북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남포시에서도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여 수백km의 선로들과 송배전설비들이 새롭게 개조되였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사회주의대고조진투장들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송변전계통현대화공사를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언제공사 적극 추진 이천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이천군민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발전소언제공사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언제좌안암반기초굴착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콩크리트치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에서 건설하는 이천군민발전소는 림진강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발전소로서 이 발전소건설이 완공되면 전력문제가 보다 원만히 해결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위훈을 떨쳐가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언제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현장을 맡고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며 공사가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힘있게 해나가고있다.

이천군민발전소건설려단의 일군들이 언제공사와 발전기설공사, 방수로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사들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맞게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날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더욱 높이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방대한 언제공사를 맡은 련두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콩크리트혼합물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는 혼합장 및 선별장건설을 짧은 기일에 끝낸데 이어 언제좌안암반굴착공사를 단 몇달동안에 와닥닥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공사를 박력있게 내밀수 있는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면서 언제좌안기초콩크리트치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방수로기초굴착을 맡은 이천군대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매일 맡은 과제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대대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도 앞서나가고있다.

시추작업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발전소건설기일을 앞당기는데 자기들의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답게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대동강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떨치리

남패자회의 79돐을 맞으며

우리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조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만장약한 전만군민의 기상이 하늘에 닿고있다.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검덕의 고경천영웅소대원들, 올해전투목표를 앞당겨 완수한 단위들, 대고조진역들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동해의 중심어장에서 승전고마냥 울려퍼지는 만선의 배고동소리, 수많은 새형의 80hp트락또르, 5t급화물자동차들을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들 이룩한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다른 나라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조선은 오히려 희상의 성과를 이룩하며 과감히 돌진하고있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그 불굴의 신념과 의지, 강의한 정신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덧 79돐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저 멀리 몽강천의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릴데 대한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에 넘친 음성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회의장에 차넘치던 전절한 자주정신,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장구한 세월의 연력을 넘어 오늘도 우리 혁명의 앞길에 필승의 기치로 나래치고있기에 우리 조국이 만난시련을 짓부시며 최후승리에로 질풍노도쳐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 일생의 총적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나는 그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주체27(1938)년 가을 우리 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일제는 관동군 주력사단들의 대부분과 위만군, 지방무장경찰대까지 총동원하여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군사전략상중요지대들에 배치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한편 군사적공세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치본공작》, 《사상공작》, 《귀순공작》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토벌》을 대대적으로 벌리였으며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검거, 투옥, 학살만행에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때 좌경모험주의가 빚어낸 열하원정의 후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서남부일대에 증강된 적의 대병력과 거의 단독으로 맞서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0여일간에 걸쳐 진행된 남패자회의에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줄기찬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책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우리 전만군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우리들이 이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선혁명은 전진을 멈추게 될것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혁명가들인것만큼 난관앞에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더욱 억세게 싸워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남패자회의에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해서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로 진출하며 광활한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이것은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인류의 전쟁사에는 수백배의 강적이 겹겹이 포위진을 치고있는 역경속에서 이런 과학적이고 대담한 공격전략을 창조해낸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적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격파해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것이였다.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시는 제일배짱가이시고 위기에 처한 혁명을 구원하고 조국을 되찾기 전에는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애국애족의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력사에 류례없는 이런 대담한 공격전략을 내놓으실수 있었다.

참으로 남패자회의는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나가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우리 혁명앞에 닥쳐온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다, 앉아서 걱정만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수 없었다, 물론 밑영같은데 들어가서 배겨있으면 한해 겨울을 무사히 보낼수도 있고 력량은 보존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현상유지나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해서 조국에 나가기로 했다고 교시하시였다.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는 천백배로 굳세여졌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은 참으로 가혹하고 준엄한 시련의 혈로였다. 그것은 부대의 이동을 위한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웅근 하나의 전역과 맞먹는 규모가 큰 군사작전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속도였다고 말할수 있다.

《진드기전술》에 의한 적들의 검질긴 추격, 비행기까지 동원한 이중삼중의 포위망, 조선인민혁명군의 내부와해를 노리고 감행된 대대적인 《귀순공작》, 깊고깊은 눈무지들과 모든것을 날려보낼듯 한 눈보라, 령하 40°C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참기 어려운 식량난…

조선혁명이 주저앉느냐, 과감히 일어나 전진하느냐 하는 카렬처절한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속에서 끓어번진 열원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담대한 배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원쑤를 치고 조국을 찾고야말겠다는 강의한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령군술과 힘기울면하는 유격전술로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강도일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병력의 집중과 분산, 불의의 기습전, 신속한 기동전을 비롯한 많은 전술에 놀음은 얼마나 전률하였던가. 마침내 일제의 악랄한 발악적공세는 격파되였으며 고난의 행군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그 나날을 돌이켜보며 항일의 로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무서운 곤난속에서 적들과 싸우면서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그 힘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자신도 놀라리만큼 무섭고 강력한것이였다.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이였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성과 엄혹성으로 하여 걸음걸음 혈로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하지만 굴함없는 백두의 공격정신이 있고 그 빛나는 계승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의 전진이 더디여지거나 멈춰선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달려들던 그 시기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적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실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였다.

그 나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헤치신 고난의 행군의 자욱자욱이 어찌 추억깊이 안겨들지 않았으랴.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력사들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력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추억하시며 하신 이 뜻깊은 교시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맞받아 뚫고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필승의 기상이 가슴에 세찬 격랑을 일으킨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강국의 높이에로 치달아올라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탄력과 배짱,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있어 고난과 시련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가 펼쳐지는 경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시련속에서도 더더욱 철통같이 다져진 우리의 일심단결,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 온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이 땅우에 장엄히 펼쳐진 새 세기 산업혁명…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시고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백두의 공격정신을 떠나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새겨진 자랑찬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몇해전 4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형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을 잊지 않고있다.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여 사나운 칼바람을 맞으시며 사연깊은 혁명의 전구들을 굽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중이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백두광야에서 풍찬로숙하시며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일제의 대군을 쉬락쩌락하신 어버이수령님과 그 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가 감회깊이 되새겨지시였으리.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어버이수령님과 미제의 멸촌을 거머쥐시고 준엄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그대로였다.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전만군민이 심장에 새긴것은 무엇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라는 절대의 확신이였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눈부신 기적마다에 새겨져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그것으로 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기상이.

백두의 공격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며 필승의 기치이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이런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전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쳤기에 오늘의 빨찌산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신념의 강자들을 키우시던 나날에

기묘한 돌파전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많은 적진장들에서 탁월한 군사전법과 전술로 일제침략자들을 쉬락쩌락하시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있는가.

대화소포장에서 로획한 박격포로 일제를 전률케 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승전포성, 일제가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100여리를 보무당당히 행군한 일행천리…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수령님은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더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주체27(1938)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몽강천 남패자의 숙영지를 떠나 행군길에 오르시였을 때의 일이다.

부대가 무연하게 펼쳐진 남패자의 울창한 밀림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니 주변에는 일제놈들이 지켜놓은 우등불들이 팍 불어서 있었다. 남패자의 수림을 중심으로 겹겹이 원을 그리며 타오르는 불무지들, 그 불무지들만 보아도 적《토벌대》의 력량이 어느 정도인가 쉬이 짐작할수 있었다.

(저 포위진을 어떻게 빠져나갈것인가.)

대원들모두가 긴장한 눈빛으로 불무지들을 내려다보고있을 때 우리 수령님의 음성이 조용히 울려였다.

우리를 촘촘히 에워싸고 타오르는 저 우등불들은 수만의 적들의 대포위환을 의미하오. 우리가 어마어마한 저 포위환을 어떻게 돌파하겠는가. …

이렇게 여유작작하신 어조로 조성된 정황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생결단을 요구하는 포위탈출전투는 적의 어느 한 모퉁이를 타격하여 돌파구를 조성하면서 빠지는것이 상식으로 되고있지만 그것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대원들은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조국으로 향한 행군길을 열어놓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근엄해진 대원들의 얼굴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희생이 없이 적의 대포위속을 빠져나가자면 적의 약점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지금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굉장한 우등불로 우리를 위협하고있으나 저것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가려켜주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불무지걸에 있는 적들은 먼곳을 볼수 없다고, 그러므로 저 불무지들사이가 우리가 빠져나갈 공간이라고, 저 공간으로 적의 포위진을 은밀히 돌파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순간 대원들의 얼굴마다에 끓는 경탄과 환희가 어리였다.

얼마나 명철한 가르치심이고 기묘한 전술인가. 결국 적들이 위압을 주느라고 지펴놓은 수많은 우등불들은 유격대가 빠져나갈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인셈이였다.

전대오는 흥분의 파도로 조용히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의 돌파전은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높은 각오와 기개를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오늘의 포위탈출에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기민성과 은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대오는 사방으로 분산되여 외줄로 늘어서서 불무지들사이로 소리없이 빠져나갔다. 그날 밤 남패자의 수림속에서는 적들이 지켜놓은 수많은 우등불들이 유격대원들의 길안내를 하며 날이 새도록 타올랐다.

본사기자 한 영 민

맹산촌오지에서 열린 회의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29(1940)년 가을에 열린 맹산촌회의를 잊지 않고있다.

당시 일제의 발악적인 《토벌》공세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고비를 이겨내고 혁명을 다시한번 상승시키자. 좋다.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두고보자!

이것이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맹산촌오지에서 하신 생각이였다. 대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사상통원이 필요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소집한 회의가 바로 맹산촌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10여년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하게 될지 10년 더하게 될것은 적어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배, 몇십배 더 큰 난관도 있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

대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일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맹산촌오지에서 열린 회의,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의 혼연일체를 다시한번 확증한 회의였다.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군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 철지 그것은 적어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배, 몇십배 더 큰 난관도 있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

대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일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맹산촌오지에서 열린 회의,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의 혼연일체를 다시한번 확증한 회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입니다. 신념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가야 하는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령님을 잃은 다음 내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피눈물의 언력을 넘으며 가슴에 새긴 철의 진리입니다. …

백절불굴의 전위투사로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어려웃을 돌아보시며 지휘성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곳 군부대는 무적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고,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성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혁명적신념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령님께서 지니시였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는 신념과 배짱을 그대로 닮는다면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도전도 짓부시며 반드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위투사로

그이께서는 전투원들은 고립무원한 적구에 홀로 떨어질수도 있는것만큼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눈속에 묻혀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무서워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전위투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지휘성원들은 군인들을 집해고도에서도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 백절불굴의 전위투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갈 맹세로 가슴을 끓이였다.

본사기자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는 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선구자들인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며 혁명을 위하여 공적을 남기고 생을 마친 렬사들을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는 사람 누구나 가슴치게 절감하는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항일혁명선렬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다 바쳐싸운 혁명전사들의 삶은 영원하다는 고귀한 진리이다.

공화국영웅메달을 부각한 화환진정대와 조각군상들, 생전의 모습그대로 세워진 혁명렬사들의 반신상…

그 모든것을 소중히 새겨보느라면 혁명전사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주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과 고결한 의리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주체62(1973)년 8월 어느날이였다. 말복을 앞둔 이날은 전에 없이 무더웠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여름의 피약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작봉마루에 오르시였다.

동서남북으로 확 트인 산봉우리에 오르시여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멀리 산아래에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평양시의 전경을 이윽토록 굽어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여기에 올라서니 우리 조국의 휘황한 전망이 그대로 보이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소나무밑에 허물없이 앉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웃주머니에서 몇겹으로 접은 한장의 종이를 꺼내 펼쳐드시였다. 수령님께서 펼쳐드신 종이에는 혁명렬사릉에 안치할 투사들의 이름이며 그들의 생년월일과 혁명에 참가한 년대며 전사한 날자와 지명까지 세세히 적혀있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희생된 전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긴긴 여름해도 어느덧 서쪽하늘가로 기울어져 벌그나 시간이 흘렀다. 동행한 일군들이 초조히 시계를 들여다보며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렬사릉건설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다시금 렬사릉터를 천천히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렬사릉을 규모가 더 크게 최대의 성의를 다해서 건설하자고 간곡히 교시하기도 하시고 렬사릉이름은 《혁명렬사릉》으로 하고 릉어구에 혁명가들의 투쟁업적을 두고두고 전할수 있게 종합비를 하나 잘 만들어세우며 비문의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혁명렬사릉건설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미나면 현지지도의 길에서까지 일군들을 부르시여 혁명렬사릉에 안치할 투사들의 인원수도 정해주시고 여러차례 전화를 지시여 혁명렬사릉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도 몸소 풀어주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고 오래전에 떠나간 혁명렬사들의 형상을 두고 창작가들이 안타까이 모대기고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생김의 특징들과 성격상특징까지 기록한 자료를 친히 보내주시였고 어느 동무는 지금 살아있는 누구와 비슷하니 참고하라는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혁명렬사릉을 더욱 웅장하게 일떠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체73(1984)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대성산혁명렬사릉개건확장공사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여러가지 재질로 만든 반신상견본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반신상을 동으로 하면 어떻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은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한두상도 아닌 수많은 반신상을 모두 동으로 만든다는것은 일군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였다.

일군의 심중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신상을 만드는데 동이 얼마나 드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일군이 말씀올린 수자는 엄청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혼자말씀처럼 그 수자를 몇번이고 되이시다가 나라의 동사정이 아무리 긴장하여도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을 동으로 만들어세우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렬사들의 반신상을 동으로 만들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못 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오래도록 반신상곁에 서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반신상들을 번갈아보시면서 반신상의 색갈까지 정해주시고서야 주작봉마루를 내려오셨다.

한여름의 불볕이 내리쪼이던 어느날, 또다시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신상구역에 이르시여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동안이 지나도록 말씀이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해방후에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렬사들가운데서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만 영웅메달을 단것으로 형상하였는데 사실 그들만 영웅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다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일군에게 항일혁명투사들은 다 영웅이라는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만한 방도를 찾지 못하는것이 더없이 민망스럽고 안타깝기만 하였다.

사색에 잠겨 반신상앞을 천천히 오가시던 그이께서는 밝은 안색을 지으시며 화환진정대에 동으로 금별메달을 크게 만들어 부각해놓으면 항일혁명렬사들모두가 영웅이라는것을 누구나 보고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우에는 공화국영웅메달이 크고 정중하게 부각되게 되였다.

항일혁명렬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는 렬사릉의 배경을 장식한 붉은 기발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어느날 공사가 한창인 건설장에 나오시여 반신상구역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웃부분의 형성을 의의있고 특색있게 잘 살리자면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 기발을 형상하여 세우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친필비를 정중히 건립하도록 하시고 조각군상들을 잘 형상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전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숭고하고도 열렬한 혁명적사랑과 숭고한 의리가 그대로 고임돌이 되고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비문이 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은 세상에 둘도 없는 영생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오늘도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혁명전사들의 삶은 영원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심장깊이 쪼아박으며 혁명의 1세들처럼 살며 투쟁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일 권

박봉주동지

통천수산사업소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통천수산사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사업소의 어려웃을 돌아보면서 활급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어로공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수산부문 일군협의회에서는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어로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며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이에 앞서 박봉주동지는 국립무용학원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습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투철한 혁명정신을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제1작업반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 대한 해설모임을 가지였다.

항일혁명투사 최희숙동지가 지녔던 혁명적신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한 그는 더 높은 농업생산성과를 이룩하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누구나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전절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신념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수령의 령도업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대 홍 단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력사의 땅 대홍단군이 나날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어가고있다.

10여년사이에 군소재지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일신되였다. 대홍단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과 군문화회관, 체육관, 수영관 등이 일떠서고 수십동의 공공건물들과 소층살림집들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황홀한 불장식과 분수, 백두삼천리벌의 카덕을 따라 탈리는 《대홍단》호렬차의 기적소리도 좋지만 감자농사와 가공, 축산업과 지방공업발전에서도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여 인민들의 웃음과 기쁨은 더욱 커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이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는 대홍단군의 놀라운 전변, 여기에는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헌신한 김동일군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남다른 사색과 과감한 실천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대홍단군의 헌신은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수령의 령도업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결사관철해나가는데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백두대지에 뿌리박은 사상의 기둥, 신념의 기둥

대홍단군은 감자농사혁명의 포성이 울린 력사의 땅이다.

10여년전 대홍단군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사업하게 되였을 때 김동일군당책임비서(당시)는 군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부터 돌아보았다. 대홍단군의 력사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펼쳐놓고 생각할수가 없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나라가 해방되면 백두산일대의 넓은 지대를 개간하여 큰 농장을 꾸릴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그때에 벌써 대규모의 국영농장을 창설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백두삼천리벌에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시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끝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 항일혁명의 나날 조국전군대오와 함께 신사동마을에 오시여 한 가난한 농가에 두되박의 소중한 밀종자를 남겨두고 가신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

대홍단군 언혁의 갈피갈피를 더듬는 군당책임일군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혁명사적사업을 중시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대중을 산악같이 일떠세우자면 그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난 10여년간 대홍단군이 감자농사에서나 군꾸리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걸쳐 전국의 앞장에서 달리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가는 비결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많은 군의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의 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로 키운데 있었다.

그 나날에 있었던 한가지 이야기가 있다.

대홍단군 창평농장 제5작업반 바람막이숲공지에는 이 고장 인민들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감자구이터가 있다. 창평농장에 잘 때마다 군당책임일군의 발길은 저도모르게 사연깊은 그 장소로 돌려지군 하였다.

주체91(2002)년 10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평농장 제2작업반의 농업생산건물을 돌아보시고 감자연구소로 가시던 길에 바로 이곳에서 구운 감자 몇알로 너무나 소박한 야전식사를 하시였다.

북방의 찬바람이 불면 그날 모닥불이 타올랐던 그 사연을 정녕 잊을수가 없어 이 고장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한 발자취가 새겨진 그 자리에 정성껏 표식을 해놓았다.

하지만 그곳에 갈 때마다 군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혁명사적표식비를 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교양거점으로 꾸려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군당책임일군은 해당 일군들과 함께 혁명사적표식비건립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실천에 옮기였다. 그리하여 얼마후 아득하게 펼쳐진 감자숲을 솔바자처럼 두른 바람막이숲공지에 혁명사적표식비가 정중히 건립되게 되였다.

감자구이터에 혁명사적표식비가 건립된것은 군안의 전반적인 혁명사적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였다. 뜻깊은 장소들에 수천리밖의 광산에서 품들어 날라온 화강석을 다듬고 다듬어 풍부한 사적내용을 담은 10개의 혁명사적표식비들이 련이어 새로 건립되였다.

대홍단혁명사적관을 건설할 당시 그 위치문제가 론의되였을 때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사적관의 위치문제도 깊이 따져보았다. 군소재지에서 떨어져있는 혁명사적지에 사적관을 건설한다면 군내인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갈수 없게 되지 않는가.

이리하여 군소재지중심에 대홍단혁명사적관건설위치가 정해지고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시기와 새 세기에 이르는 사적내용을 담은 수많은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전시한 8개에 달하는 참관호실들을 포함한 사적관이 무산지구전투로정과 대홍단의 개척력사를 력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정중하면서도 품위있게 꾸려지게 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을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구성, 전시형식과 조명효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을 돌리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사상교양의 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공장, 기업소, 농장별로 사적관참관을 통한 혁명전통교양과 선동, 교양, 강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이처럼 김동일군당위원장은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백두대지에 사상의 기둥, 신념의 기둥부터 든든히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로, 대홍단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완강하게

김동일군당위원장의 일본새에서 주목되는것은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어 련속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이다.

군에는 령도업적단위들이 많은데 어느 단위부터 앞세워야 하겠는가.

이에 따르는 결심체택을 앞두고 군당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부터 진지하게 학습하였다. 매 문장, 문구를 깊이 새겨가면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홍단군의 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나의 발전소를 건설해도 인민들이 실지 력을 볼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신 교시에서 눈길을 떼야 없었다. 군의 실정만 보아도 감자가공을 대대적으로 하자고 해도 그렇고 지방공업공장들을 만가동시키자면 뭐니뭐니해도 전기가 있어야 하였다.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군이 잘살수 있는 담보가 있었다.

군에는 여러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홍단1, 2, 4, 5호발전소는 령도업적단위였다. 그러나 몇해째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물길들이 피해를 받은 상태였으며 그로 하여 전력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군의 감자농사와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이러한 실태는 군당책임일군으로 하여금 무엇보다 발전소들을 기술개건하여 전력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다듬게 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일군들과 함께 골짜기들에 자리잡은 발전소들을 신발장이 닳도록 돌아보았다. 그는 한주일이 멀다하게 능력이 제일 큰 대홍단5호발전소를 찾아갔다. 대홍단5호발전소는 건물자체가 지대적으로 낮은 위치여서 장마철에 강수위가 높아지면 자연히 물이 올라와 침수되군 하였다. 그는 군급기관 일군들과 발전소건설자들, 기술자들과 마주앉았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협의회가 열리고 온 군의 이목이 여기에 쏠리였다.

기술자들은 처음에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5호발전소의 기술개건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던것이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의 립장은 확고하였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점부터 세우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습니다.》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떨쳐나섰다. 문형기중기제작은 대홍단감자가공공장과 군농기계작업소, 후방사업은 군당위원회가 맡았다. 한편으로는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책임진 한개 조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제작한 발전설비들을 수송하였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립체전을 벌리니 그 위력은 대단했다.

단층으로 되여있던 5호발전소건물은 2층으로 솟구쳐올랐다. 발전기실에는 장마철과 보수주기를 라산하여 발전기를 단번에 들어올릴수 있는 문형기중기가 설치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그후 4호발전소의 실태를 료해한 다음 또다시 돌격구령을 내렸다. 온 군에 불이 붙었다.

발전소건설경험이 풍부한 일군들과 기술자, 오랜 기능공들을 기본력량으로 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건물부터 새것이나 다름없이 개건하고 저락차라인을 고락차라인으로 교체하였다. 군급기관, 기업소들에서 달려온 일군들도 차디찬 물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온몸을 적시며 언제를 보강하였다.

군에서는 모든 발전소들을 이런 식으로 훌륭히 개건하였고 군적으로 종전에 비해 몇배에 달하는 발전능력을 조성하였으며 전력공급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할수 있게 하였다. 발전소로 오고가는 도로도 일신되였다.

발전소만이 아니였다. 책임일군들은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군문화회관, 체육관, 수영관 등이 일떠서고 수십동의 공공건물들과 소층살림집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군소재지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변모되였다.

주체99(2010)년 5월 대홍단군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의 어려곳을 돌아보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아주 잘 꾸렸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영광의 그날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며 일군들은 혁명하는 보람과 긍지를 한껏 느끼였다.

일군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군을 더욱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쳐갔다.

군에서 최근에 새로 해놓은 불장식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어려해전에 이미 대홍단군에서는 군소재지에 불장식을 해놓았었다.

군자체의 힘으로 하다보니 좀 어설픈감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대로 멋있었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은 날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비해볼 때 불장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밤중의 퇴근길에서도 읍지구를 돌고돌았다.

군에서는 선경불장식연구소의 기술자들을 초청하였고 군의 기술력량을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수십개의 건축물들과 그 주변에 고상하고 품위있는 불장식을 하여 황홀한 야경을 펼쳐놓았다.

노을빛조명속에 승엄하게 안겨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영생탑, 대홍단혁명사적관, 아름답고 우아한 조명으로 장식된 군문화회관…

이 고장 사람들은 10년 남짓한 사이 군에 해마다 새 창조물이 생겨나고있다고 자랑삼아 말하고있다.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듯 새로운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기마련이다.

감자농사로 흥하는 대홍단이 되여야 한다

군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감자농사이다.

어느 군에나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종자, 소중한 씨앗이 있다.

이 귀중한 씨앗들이 얼매를 맺어 현실에서 얼마나 크나큰 생활력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은 당이 맡겨준 나라의 200분의 1을 책임진 군당책임일군의 어깨우에 놓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김동일군당위원장의 사업경험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감자농사를 잘 짓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악하게 실천한것이다. 그는 감자농사를 수령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였다.

백두대지에 바야흐로 감자심기철이 다가오던 어느해 봄날, 감자종자야외싹틔우기장에서 실수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농장들에서 시기를 다투는 봄영농기를 앞두고 감자종자를 많이 마련하겠다는 욕망만 앞세우다보니 감자종자야외싹틔우기장에서 부패현상이 나타났던것이다.

즉시 현장에 도착한 군당책임일군은 군급기관 일군들, 감자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원인을 찾아보았다.

감자종자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생리적으로 불리하며 보통 방안온도와 같은 온도이면 적중하다. 그런데 감자종자가 낮에는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받았고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낮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되였던것이다. 협의과정에 감자종자싹틔우기를 탈리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게 되였다. 이리하여 생육기일을 보름이나 앞당기면서도 허실없이 감자종자싹틔우기를 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군당책임일군은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였다.

원인의 하나는 명백히 이미 당에서 만능의 보검으로 쥐여준 대홍단식과학농법을 현실에 실속있게 구현하지 못한데 있었다. 또 하나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대홍단식과학농법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은 무게있게 말하였다.

《작업반들에서 농업과학기술선전실운영을 잘하여 그들이 영농공정을 환히 꿰들도록 합시다. 대홍단의 농사는 뚝심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리하여 농장작업반들과 분조들에서 과학농법학습열풍이 일었고 그 과정에 농업근로자들은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게 되였다.

대홍단군의 바람막이숲에 단풍이 물들 때 가없이 펼쳐진 포전마다에서 능력이 큰 트락토르들이 감자종합수확기를 뒤에 달고 내닫는 화폭은 대홍단특유의 멋들어진 풍경이다. 사람들은 백두삼천리벌의 이 화폭을 보게 되면 감탄하겠지만 군당책임일군의 눈길은 그 광경을 무심히 스치지 않았다.

채종농장들에서도 감자종합수확기를 리용하다보니 감자종자에 상처가 생겨 손해를 보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던것이다.

군당책임일군은 여기에 력점을 찍었다.

《술한 품을 들여 생산한 소출이 높은 튼튼한 감자종자를 한알한알 닭알다루듯이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방도를 꼭 찾아야 하오.》

이리하여 군당책임일군의 착상에 따라 감자종합수확기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수확하여 알알이 비닐미대에 담아 감자종자저장고에 보관하게 되였다. 결과 감자종자부패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였고 감자종자는 유전적잠재력을 잘 나타내게 되였다.

군에서 최근 몇해동안 감자정보당 수확고를 계속 높이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려주신 대홍단, 장군님의 숭고한 자욱자욱이 이름없는 그 어느 포전에도 속속들이 스며있는 백두삼천리벌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겠다는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데 있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탈리는 어찌할수가 없다고 하면 서리피해, 가물피해, 장마피해도 온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낸 사실, 올해에 모든것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부식토를 실어내기 위해 백열전을 벌린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몇해전 어버이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따라 가렬한 전화의 불비속에서 창설된 국영5호종합농장이라는 농장의 명칭과 더불어 이미 있던 대홍단군농업경영위원회를 대홍단군5호농업경영위원회로 부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위하여주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 결의를 다시금 가슴깊이 가다듬었다.

군당책임일군에게는 저도 모르게 찾아가군 하는 정든 장소가 있다. 그중 하나의 장소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과 어울려 백두삼천리벌이 한눈에 안겨오는 까치봉마루이다. 또 다른 한 장소는 대홍단읍거리의 전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농사동농장 감자포전 한끝이다. 누구나 지어 촬영가들도 그 위치에 서면 손목을 치며 감탄하게 되는 그 장소들이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이 까치봉마루와 농사동농장 감자포전에 찾아가 새 힘과 용기를 가다듬군 한다.

백두삼천리벌에는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발을 아로새긴 명제비가 있다. 군당책임일군은 10여년전 군에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스스로 자기 사업을 총화해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한다.

예로부터 흔히 사람들은 땅이 기름지여 농사가 잘되고 산좋고 물좋고 기온이 따뜻하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일러왔다.

하지만 군당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제에는 대홍단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시려는 그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자면 바로 이 땅의 주인들인 우리들자신이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길에서는 올라선 높이에서 지나온 길이 아니라 광명한 앞날을 바라보며 부단히 돌진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에서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것이라면 한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더라도 해내야 한다는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높은 실력에 달려있다.

대홍단군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유훈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모든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에서 혁신

경 성 애 자 공 장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공장이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공장참모부서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올해 전기설비생산과 애자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전기설비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고압기구청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부족되는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전기설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소재준비직장에서는 설비의 만가동에 생산장성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설비들에 대한 기술점검과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10여종에 달하는 전기설비부속품과 규격품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절연물, 제판직장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 투쟁정신으로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한주일동안에 10여대분의 차단기절연물과 여러종의 전기설비제판품을 생산한 기세로 절연물과 제판품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생산적앙양의 불길은 애자성형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1, 2애자직장에서는 중형애자성형기를 비롯한 현대화된 설비와 기대관리를 짜고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수많이 탐구도입하여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성형실수률을 높이고있다. 특히 2애자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조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헌수애자를 비롯한 각종 규격의 애자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원료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의 질이자 곧 애자의 질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분쇄기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원료배합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지표들을 정확히 지켜 원료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전기설비생산과 애자성형실적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물고기잡이성과 확대

양화, 청진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양화, 청진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집중어로전투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이 사업소들의 일군들은 어로공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먼바다에 나가 수시로 변화되는 어황상태에 맞게 해상지휘를 능숙하게 짜고들면서 격동적인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였다.

동해의 중심어장을 타고앉은 양화수산사업소에서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진입하여 천수백t의 물고기를 잡아들이였다.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인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어로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2선단의 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어황상태에 따라 기동적인 어로전을 벌림으로써 기망당 많은 물고기를 퍼올렸다.

1, 3선단에서는 과학적인 어장탐색과 고기떼들의 신속한 집중, 분산을 대담하고 자망, 뜨랄 등 다양한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청진수산사업소에서도 중심어장에 성능좋은 고기배들을 진출시켜놓고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편일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할 열의안고 1선단의 어로공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매일 계획을 150%이상 해제낌으로써 사업소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있다. 2, 3선단의 어로공들도 어황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물고기잡이방법을 받아들여 기망당 어획고를 높이고있다.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고기잡이전투를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배심있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도록

강서탄광 2갱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지난 10월 10일부 당보에는 강서탄광 2갱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리성봉갱장의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된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던 나날이 더듬어졌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 그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초 석탄생산계획을 결의목표에 반영하던 때였다. 갱장은 상반년도 석탄생산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8월 15일전으로 끝낼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 비해 거의 1.5배의 석탄을 매일 캐내야 하는 아름찬 목표였다. 그렇다고 조건이 좋아진것도 아니였다. 일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겠는가 하면서 도리머리를 흔든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여년동안 갱장으로 사업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쌓은 리성봉동무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비약을 일으키려는것이 그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부문당위원회는 행정일군의 담찬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속에 갱장은 첫 전투에서부터 배심있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척된것이 아니였다.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부문당위원회는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행정일군이 잠시라도 주춤할세라 마음을 기울이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었다.

김성남교대의 석탄생산실적이 계획보다 떨어졌을 때였다. 원인은 굴진공 김동무가 막장일에 품을 꽉 잡그지 않은데 있었다.

안광수부문당위원장은 퇴근길에 김동무의 집을 찾았다. 안해가 앓고있었는데 김동무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었다.

부문당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빈구석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김동무의 안해의 병치료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가 속한 단위 당세포에서도 육친의 정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집단의 뜨거운 정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김동무는 분발하였다. 결과 김성남교대의 석탄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어떻게 하나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하려고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나선 갱장의 발걸음에도 나래가 돋친듯싶었다. 그는 석탄생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 나날에 갱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지난 30년동안에 있어본적이 없는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면서 4월 14일까지 상반년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7월말 갱장이 권양기가 불비하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였다. 8월 15일전으로 년간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온 갱이 부글부글 끓고있던 시기여서 그의 가슴은 철렁하였다. 불비한 권양기를 계속 돌리다가는 뜻밖의 사고를 낼수 있었고 권양기를 수리하느라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수도 있었던것이다.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 참가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문당위원장은 갱장과 마주앉았다. 그들은 대담하게 권양기를 수리할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갱장이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여 며칠사이에 수리를 끝내며 그사이 부문당위원장은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막장에서 석탄을 운반갱도에 옮겨쌓기 위한 전투를 책임지고 진행할것을 약속하였다.

부닥친 난관을 타개해나갈 뚜렷한 방도가 세워지자 갱장은 신심을 가지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그는 대안구역을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치차를 비롯한 부속품들과 자재들을 해결해왔고 권양기수리전투를 지휘하였다.

한편 부문당위원장은 불편한 몸이였지만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석탄운반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운탄공들과 함께 탄차를 밀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였고 후방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탄부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그리고 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탄부들의 정신력을 앙양시키게 하였다. 석탄을 운반갱도에 빨리 옮겨쌓아야 일단 권양기가 돌아가면 와닥닥 밖으로 끌어낼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종업원들은 시간을 조개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마침내 갱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리된 권양기로 운반갱도에 옮겨놓은 많은 석탄을 제때에 끌어냄으로써 8월 14일까지 년간석탄생산계획을 100.5%로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다.

결의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갱장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행정일군들이 경제사업에서 주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내세워주고 떠밀어주는 당일군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이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였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장시

조 선 은 노 래 한 다

문 춘 심

— 지금 조선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오늘도 악몽속에 잠을 잔
백악관의 하루는
이 물음으로 시작된다
오늘도 세계의 촉각은
이 대답을 얻으려 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미통조차
세계엔 거대한 충격파로 번져가거니
얼핏 던지는 말 한마디로도
태평양을 설설 끓게 하는 나라
한번 울리는 포성만으로도
세계대전을 막아내는 나라
진정 조선은 얼마나 큰 나라더냐
세계지도를 펼쳐드는 손과 손들이
저마다 단숨에 짚어내는 나라
땅에서만 보아서는 다 알수 없어
우주에 올라 보아도 수수께끼같은
나라
다치면 터질듯 한 시한탄인듯
누구는 불안속에 조심히 바라보고
지구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처럼
누구는 경탄속에 신비로이 우러르는
세계의 중심축
이 축을 따라 지구가 돌기에
지구상의 누구나가 묻지 않을수 없다

— 지금 조선은 무엇을 하고있
는가?

× ×

낮보다 환한 밤
명절보다 화려한 차림
류다른 이 풍경이
예사롭운 화폭이 된지도
벌써 몇달째런가

룡흥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선망속에 불러보던 이 부름이
황홀감을 자아내던 그 자태가
그 언제 이렇듯
우리 생활과 가까와졌는가
마치 하늘이 땅에 내린듯
수도 평양이 한복판에 옮겨온듯

극장이 생겨 무대가 펼쳐져
언제 이리도 흥성인적 있던가
이리도 많은 사람 맞은적 있던가
그 어느때 저렇듯 많고많은 축하의
꽃들이
한곳으로 한곳으로 모여온적이…

환희에 들뜬 얼굴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웃음속에
떠들썩 유표한 지방사투리들
— 오늘은 그 배우의 손 한번 잡아
보겠소
— 난 유명한 그 가수의 수표 꼭 받을
테요
내놓고 버르는 축들도 많아
온근한 속다짐도 그 못지 않게…

징넝 못 보면 한이 되리
한번 봐선 성차지 않으리
일터마다 거리마다 온통 공연소리뿐
밋밋해진 공연종목표를 꼭 꼽은채
어제 밤무대 잠 못 이루었다는
사람들
오늘 밤은 또
희한한 공연이야기로 설레며 잠
못 들리라

여기 그 어디서 찾아볼수 있다던가
산천초목조차 들썩이게 하는
저 희열넘친 인파속에
원쑤들이 던진 제재와 압살의
그림자를
지치도록 지겹도록
원쑤들이 고대하는 절망의 한숨
소리를

× ×

9월 13일
송도원 출렁이는 푸른 물결 타고
공연의 첫막이 오르던 날
바로 그 하루전의 일이였다
일한번째로 가해진
극악한 《제재결의》 2375호
이번에야 드디여…
폐제를 올린 어리석은 무리들

이제 조선이 무엇으로 대답하랴
또다시 《화성》 아니면 핵시험?
그러나 침묵, 침묵…
왜 이리도 고요한가—
수많은 정찰위성들과 레이다망
이 땅에 초집중하고는
인내성없는 허바닥으로 겹둥이
개마냥
또다시 떠벌인다
《북풍전의 고요》를

눈을 밝히라, 빠짐없이—
귀를 도사리라, 놓침없이—
그때 이 땅이 고요하단 말인가
보라
어느때보다 약동하며 뒤설렌다
이 나라는

들으라
어느때보다 장엄하게 진동한다
조선의 하늘땅은

정의와 록제의 두 극이
허파 혜으로 맞선 첨예한 대결장에
련거퍼 오르고오르는 공연의 막
그 막 한번씩 오를 때마다
집집이 드리운 제재의 장막이
사정없이 찢겨져나간다
한줌 먼지로 물액이다 사라진다
봄날의 해살 쏟아져내리는
인민의 가슴마다
일어번진 열광은 잦을줄 모른다
승리의 푸른 하늘 창창히 열린다

그렇다
가장 무서운 대답을
원쑤들은 들은것이다
가장 위력한 폭탄선언에
놈들의 고막이 터진것이다
조선은 이렇게 싸운다
조선은 이렇게 전진한다
조선은 이렇게 노래한다

× ×

눈물, 눈물…
장내는 열화의 도가니속인듯
가득차 급이치는 격정의 분출…
방금까지 웃음속에 한맘이던 사람들
눈물속에 더 큰 하나로 통쳐진다

어디냐
끝없이 뿜어솟는 저 눈물의 샘줄기는
귀전을, 심장속을 꽉 메우는
설화시의 목메인 구절구절
품결에도 그리던
우리 수령님들 자애로운 그 영상
누군들 인연없으랴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위대한 그 정, 그 사랑과

눈가에서 손수건 뗄줄 모르는
저 녀인은 아니냐
우리 수령님 포전머리에서
흙묻은 손 꼭 잡아주신
어제날의 처녀분조장이
흐르는 눈물 걷잡지 못하는
저 사나이는 아니더냐
우리 장군님 구내길에서
사랑의 악속 하여주신
그 공장의 일군이
어린처럼 어깨들먹이는
저 소년은 아니더냐
우리 원수님 꼭 품안아주신
자애의 눈빛인가

그날의 북받은 원아가

오로지 우리를 잘살게 하여주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들과 맺은 정
피줄처럼 지니고 사는 가슴마다에
우리 원수님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전설같은 정이여 열이여

시련앞에 불굴하고 또 불굴한
인간들
고난도 청높은 웃음과 유쾌한 통말로
날려보내던 그 강의함속에
지렁듯 많은 눈물 간직되여있는줄
사무친 정의 바다 흐르고있는줄
말해보라
그 어떤 전투명명인들
이처럼 인민의 심장 높뛰게 할수
있는가를

수령님들 따스한 그 손길 잡은듯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앉은듯
꿈같이 잠겨든 세계속에
새삼스레, 새삼스레 가슴치는
생각—
우리 도가 이런 뜻깊은 땅이였던가
내 딛고 사는 이 땅이
그런 력사의 고장이였던가
뿌듯하게 뻐근하게 안아보는 긍지—
뭐니뭐니해도 우리 도가 제일
내 고향 산골마을이 제일
위대한 수령들을 대대로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오, 우리 원수님
시만을 노래만을 보내신것인가
억만의 재부보다 더 큰 재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평생의 사랑을 보내신것이다
일편단심 그 신념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가자는
불같은 믿음을 보내신것이다

그 정에 살아 눈물도 많은 인민
그 뜻에 살아 제일로 강한 인민
그 인민의 힘의 폭발을
세계여 들으라
이 세상 가장 순결한 눈물의 웨침이
천하를 진감하는 소리
위대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만세! 만세! 만만세!…

× ×

이 시각도 빛나는 당중앙불빛
인자한 미소인가
이 세상 제일로 고생많은 창가에
류다른 즐거움이 깃드는 시각이다

따뜻한 그 불빛속에 싸인 사람들
로동청년도 협동농민도
가두녀성과 유치원꼬마도 있다
바로 이들의 소박한 목소리가
날마다 우리 어버이
기다려 잠 못 드시는 소식

— 보석과도 같은 공연
세상에 돌도 없는 분평의 극치
눈부신 악단, 힘있는 악단
그리움의 정화, 고마움의
큰절…

다는 몰랐더란다
예술의 힘이 이다지 큰줄을
온 도가 달라졌단다
사람들의 눈빛도 걸음걸이까지도
생산이 배로 뛰여올랐단다
공연을 본 그밤으로 전투장에 달려
나가
계획을 200% 넘쳐섰다는 소식
벙글벙글 웃음속에
흥얼흥얼 코노래속에
심년은 젊어진단다
너도나도 모두 혁신자가 된단다

만가이 보고 또 보시는
그이의 안광에 비끼는 미소
어느새 어깨도 커져
— 저런 꽃같은 며느리 맞아봤으면
노래 잘하는 내 아들도 미래의
합창단 가수…
맘속엔 산악이 들어앉아
— 늙다리 트럼프가 보면 기절해
자빠질걸
우리는 벌써 승리하였다!

슬하에 품들여 키우신
일당백예술전사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초강도원정공연의 길
떠나보내신지도 어언 두달나마…
얼마나 장한가, 철의 군단이런듯
한번씩 움직일 때마다
인민이 일떠선다
강산이 변모된다
상상 못할 힘이 새롭게 태여난다

미친듯이 벌리는 혁전쟁소동
전략자산들의 심상찮은 움직임
동해상공을 찢는 아츠리운 굉음
자애의 눈빛인가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락관의
노래

분별없은 무리들
3대혁전략자산을 그리안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헤덤
빌 때
그이는 한가슴에 안으셨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3대전선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사랑의 힘, 노래포성으로
그 웃음소리 더 높이 울리신다
천만의 심장에 불을 다신다

허나 자못 걱정도 크시거니—
기쁜 일에도 근심 못 놓는
다심하신 어머니의 천품그대로
웃음진 얼굴들뒤에
안타까운 표정들에 더 마음씌우신다
서운하여 극장밖을 못 떠나는 모습들
헐차라고 빼스라고 달려오는 마음들
언제나 그리하듯
그이의 기준은 인민의 요구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의 소원
입입이 다 풀어주고싶으신 심정으로
촉박한 공연기일
다시 또다시 연장도 해주시고…

행복하구나 이 땅의 인민이여
넓으나넓은 인덕의 그 품에
마음놓고 운명맡긴 복받은 생들이여
인민위해 온 하루 천리 먼길 다녀
오신 그이
이밤도 로고의 장정을 계속하시여라
온 나라 방방곡곡 집집과 일터
매 사람들 마음과 마음의 문 다
열어보시며

지금 이 시각도 빛난다
당중앙장가의 불빛은
이 땅과 온 세상을 다 안고
사랑과 보람과 심려를 다 함께
안고…

× ×

불협화음으로 늘 소란스러운 행성을
청신한 공기와도 같이 뒤덮는 노래
얼마나 다행한것이냐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진정한 음악을 위해
이 땅우에 조선이 있다는것이
인류는 본다
참다운 음악의 힘
락관의 노래

력사를 움직이는 인민의 무서운 힘을
그 누가 정복할수 있다더냐
노래하는 나라, 노래하는 인민을
제재의 사슬을 엿가락처럼 녹일듯
증오에 타던 눈빛들이
미국땅을 즐안에 전듯
여유자작 쓴웃음으로
그 행태를 내려다본다
분노와 비장함을 넘어
최후승리의 망만을 조선은 안았다

보라, 조선의 모든것이 노래한다
흐르는 강물도 불어오는 바람결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아이들도
그들이 끓이는 쇠물도 노래한다
그들이 돌리는 기대도 노래한다
파도치는 벼바다, 설레이는 황금해
파일항기 내뿜는 황금산도
음씰음씰 춤추며 노래한다
어디 가나 웃음파도, 전진의 동음
승리의 개가높은 이 땅은
지구상의 가장 봉쇄된 나라
그러나 가장 밝은 나라, 신심넘친 나라
이 세기의 가장 극렬한 열점
그러나 가장 약동하고 비약하는 나라
전설이다 사변이다
명활한 음악보검 번개처
몇천개의 혜탄을 일시에 터뜨린듯
인민의 환희는 하늘에 닿고
침략의 아성엔 탄식과 전률—

조선은 결코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로만
위대하지 않다
노래만으로도 강대함을 떨치는 나라
노래만으로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이것이 조선의 국력
무한대한 이 땅의 종심
명도자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에
천만이 화답하는 이 백전백승의
메아리속에
비길데없이 거대한 일심이 되고
온 나라가 당중앙 한프락이 되는
이 도도한 사회주의전진의 화폭속에
미래의 진로는 이미 그어졌거늘—
세계는 조선의 의지대로 변하리라
21세기는 조선의 세월로 흐르리라
이것은 진리! 이것은 절대!
이 법칙을 거스르는 온갖 거물들을
력사밖으로 가차없이 쓸어던지며
조선은 노래한다!
조선은 노도친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찬란한 해빛만리 영광의 만리
끝없이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2일과 23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국가과학원, 농업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농산과 과수, 식료공업, 에네르기와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생물학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최신생물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학술교류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생물공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250여건의 론문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첨단생물공학제품들을 만들어내며 현대생물학의 연구성과를 농업과 의학, 식료공업부문에 널리 도입하는데서 이룩된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동식물종류와 그 서식조건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물품종들을 보호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자료들도 소개하였다.

《생물공학적방법에 의한 추위견딜성논벼육성에 대한 연구》, 《환상렉스트린합성효소를 리용한 8월물당의 단맛질개선공정에 대한 연구》, 《평양시일대 식물의 종다양성에 대한 연구》, 《미꾸라지류의 분자계통발생학적연구》, 《도자기맛려과기에 의한 글루타민산발효액의 균체분리와 균체분해액의 리용에 대한 연구》 등의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리영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훌륭히 변모된 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이 응축되여있는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가방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일행
여러곳 참관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일행 과학기술전당 참관

오. 바싼후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일행이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병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이 세상에 들도 없는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학술토론회장, 어린이꿈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또한 손님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류경치과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6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창조형인재육성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자랑찬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학부에서 짧은 기간에 일류급학부건설을 위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커다란 보폭을 내짚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9월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인재육성과 첨단과학리론,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일류급대학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은 학부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보았다.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로 교육수준을 끌어올리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새롭게 신들매를 조여맨 학부일군들은 우선 교육내용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는데 보다 큰 힘을 넣기로 하였다.

그들은 세계교육발전추세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학과목들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갔다.

새 학과목들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에게 첨단을 돌파할수 있는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가르쳐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어렵고도 방대한 과제였다.

학부일군들인 김영일, 안창성, 한성준동무들은 교원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이를 위해 새 학과목개척과 관련한 교원들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해주고 최단기간안에 완성하도록 이끌어주는 한편 강좌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모두가 밤을 지새워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대학전자도서관과 과학기술전당을 밤이 깊도록 찾아다니며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연구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바쳐온 이들의 피타는 노력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였다. 《력과 기리론과 응용》, 《응용전자기학》, 《금질판리학》을 비롯한 10여개의 학과목들이 새롭게 개척되여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이곳 일군들은 실천교육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학부교육의 특성에 맞게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학부일군들은 학과목내용들의 리론적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장치들을 개발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실험교육을 개선강화하여야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을 풍교히 다져주고 실천적활용능력을 키워줄수 있었다. 실험장치개발사업 역시 헐한 일이 아니였지만 학부의 일군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교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다고 확신하였던것이다.

일군들도 교원들도 한마음이 되여 사색과 노력을 합쳐나갔다. 기계설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이들은 수많은 도서들을 파고들면서 기계설계를 하고 해당 부분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합쳐 현대적인 실험장치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애쓴 보람이 있었다. 목표하였던대로 통합생산체계실험실습장치, 구면거울혼들이, 자형식거울혼들이를 비롯한 수십개의 실험장치들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던것이다. 이 과정에 학부는 올해 3월에 진행된 대학적인 새 학년도 교수준비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조형인재육성사업에서 학부가 거둔 성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몇달전 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일떠선 3호교사에 들어서면 날 학부일군들은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는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현대적인 실험실들을 꾸려놓을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학부일군들은 이 사업도 교원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해나가기로 하였다.

인재양성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갖추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자각한 이곳 교육자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노력과 대학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하여 학부에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다기능화된 강의실구역과 실험실구역이 생겨나게 되였다. 강의와 실험, 강의와 실천실기를 결부할수 있게 꾸려진 전공강의실들마다에는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수많은 실험설비들이 갖추어져 학생들이 실험도 해보고 새로운 착상을 검증도 해보면서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져나갈수 있게 되였다. 자동조종전공실험실, 콤퓨터조종체계전공실험실, 지능조종학전공실험실, 체계관리학전공실험실을 비롯한 실험실들도 높은 수준에서 꾸려지게 되였다. 이런 훌륭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은 첨단들과의 품과 자신심을 키우게 되였다.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에 실력가첨단으로 성장한 학부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도입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당에서 바라는 창조형인재육성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이렇게 과학교육의 해를 빛나게 장식하는 훌륭한 성과들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서함흥—서호사이 좁은철길개건보수에 기여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함경남도에서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시안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함흥—서호사이 좁은철길렬차정상운행을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시안의 무궤도전차들과 로선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마지막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그때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교통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작전안이 무르익고있었다.

무궤도전차와 로선들을 현대화하는 전투가 끝나는 차제로 좁은철길을 개건보수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자.

도당위원회에서는 함흥좁은철길운영사업소에 깃든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이를 위한 투쟁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좁은철길렬차의 운영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 현장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전기기관차들과 객차들을 현대화하며 철길을 최단기일에 개건보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무궤도전차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현대화하는 과정에 많은 경험을 쌓은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일군들이 이 사업에서 제기되는 지제들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일군들은 많은 량의 철판과 용접봉들을 알짜리 마련하여 전투장이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게 하였다.

함흥좁은철길운영사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에서 달려나온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가치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전기기관차, 객차들의 차체와 대차대수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좁은철길렬차의 운영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 현장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전기기관차들과 객차들을 현대화하며 철길을 최단기일에 개건보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혜택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려는 현장지휘부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3월말 드디여 한개 편성의 렬차가 현대화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렬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진척되는데 맞게 올해안으로 침목과 궤주를 전부 교체하고 9개의 역사들도 훌륭히 개건할데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흥덕역을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이를 위한 전투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현장에 나와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역사들도 개건해나갔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침목생산전투를 벌리였다.

이 나날 그들은 수십km의 구간에 짧 2만 4 000여정의 침목을 생산하여 렬차의 정상운행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영광전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700여대의 콩크리트전주를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서함흥—서호사이 좁은철길을 달리는 렬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투는 열달만에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불라보게 달라진 전기기관차와 객차, 역사, 좁은철길을 돌아보며 함흥시민들은 경탄과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객차의 자동출입문과 차창, 의자들…

그 하나하나에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고뛰며 애써온 도안의 일군들의 헌신적인 멸사복무정신이 뜨겁게 어려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판문점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의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투철한 통일의지를 안으시고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판문점시찰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시찰로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실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고 해내외의 온 겨레를 자주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습니다.》

민족분렬의 미국과 겨레의 한이 응어리져있고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정의와 부정의가 첨예하게 맞서고있는 력사의 땅 판문점, 가랑잎소리에도 긴장이 서린다는 바로 이 위험한 곳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였다.

당시 사회주의의 유일한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그 주구들의 책동은 절정에 달하고있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미국과 괴뢰조전광들이 벌려놓은 《독수리 96》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가 채 가셔지지 않았고 남녘의 애국인사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은 《문민》독재광의 파쑈적폭압책동에 의해 피흘리고있었다. 더우기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통치배들의 극단적인 《남북대화정책》으로 하여 판문점의 분위기는 실로 험악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의 담력과 철석같은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세찬 겨연히 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다. 애국헌신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서인가 하늘도 흰 안개를 짙게 드리웠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부터 찾으시였다. 깊은 감회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친필비준하신 력사적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이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그때도 밤을 지새우시며 두툼한 그 문건을 다 보아주시고 표지에 활달하신 필체로 친히 존함과 날자를 써주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친필은 아홉굴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친필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판문점초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업적과 크나큰 로고를 후세에 길이 전하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신 의지밑에 수령님의 고귀한 친필을 화강석에 새겨 판문점에 세우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안겨오는 친필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그리시는듯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면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실 철석의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같은 맹세의 선언이였으며 우리 겨레의 통일애국열의를 더한층 북돋아준 고무적힘의 원천이였다.

탁월한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겨레는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애국의 대용단에 의해 이 땅우에는 얼마나 환희로운 사변들이 펼쳐졌던가. 6.15공동선언과 그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한 자주통일시대, 온 강산에 차넘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합성과 통일의 열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10.4선언의 세력…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굳건한 토대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린 조국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절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계신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극도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던 주체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 력사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쌍안경을 드시고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남쪽을 여유있게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근엄하신 영상은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며 백두산호랑이로 명성을 떨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제국주의떼무리들의 전쟁광란을 백두의 불퇴성으로 쳐갈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 그대로였다. 그 숭엄한 영상을 우러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야말로 통일위업실현의 백승의 담보이라는 신념을 심장속에 더욱 굳게 새기였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숭고한 충정과 현명한 령도, 애국애족의 헌신으로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오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지만 위대한 조국통일사상이 있고 절출위인의 백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겨레는 통일의 앞날을 락관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평화파괴자들의 정체는 감출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편승하여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방위사업추진위원회》회의라는것을 벌려놓은 괴뢰들은 그 무슨 《대북방어력강화》에 대해 떠벌이면서 그를 위한 방안을 심의, 결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괴뢰들은 년말까지 기동직승기 《수리온》 30대를 륙군에 납입하며 지고도지상대공중미싸일 《M-SAM》의 생산을 재개하여 다음해부터 실전배비하려 하고있다. 또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K-2》땅크 등 각종 무장장비들의 생산과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혼비백산한 대결광들이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해보려고 부리는 부질없는 객기이다.

괴뢰들은 각종 무장장비들의 생산과 도입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력강화》조치인듯이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이다. 괴뢰들의 광란적인 무력증강책동은 《방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명백히 북침전쟁도발을 노린것이다.

괴뢰들의 《전력보강방안》의 주되는 요소의 하나로 선정된 기동직승기 《수리온》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특수전병력을 우리의 종심지역에 침투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선제공격장비이다. 지고도지상대공중미싸일 《M-SAM》이나 《K-2》땅크 등도 북침불장난들에서 악명을 떨치였다. 이러한 북침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배비하려는것을 과연 누가 《방어력강화》를 위한것으로 보겠는가.

얼마전 미국상전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무장장비들을 사들이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탄도미싸일탄두중량제한조치에서 풀려난 괴뢰들은 탄두중량 2t이상의 탄도미싸일을 개발한다, 탄도미싸일사령부를 승격시킨다 하면서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북침전쟁열에 들떠 돌아치고있다.

괴뢰들의 책동은 미국의 핵전쟁머슴군이 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망동으로서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 몰아넣는 극악한 반민족적죄악이다.

더우기 위험한것은 괴뢰들의 분별없는 무력증강소동이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첨예하다. 알려진바와 같이 트럼프패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군사적선택》도 불사하겠다는 폭언을 마구 줴쳐대면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책동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다. 얼마전에도 미제호전광들은 그 누구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압박》을 떠벌이면서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북침불장난소동에 광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의 포성이 울릴지 모르는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들이 대대적인 무력증강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첨예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미군수복점령체들의 배를 불리여주는 쓸개빠진 반민족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괴뢰들이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무력증강소동에 광분하면서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해보려고 날치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추태이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괴뢰들이 제 처지도 모르고 세계가 공인하는 주체의 핵강국, 군사강국인 우리와 맞서보겠다고 무장장비들을 개발, 도입한다고 하면서 분주스럽게 설쳐대는것이야말로 렌마리로 천연바위를 들이받겠다는것과 같은 미련한짓이 아닐수 없다.

괴뢰들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겁고들어도 미국상전과 함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에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반도의 정화를 수호하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적억제력에 맞서보려고 함부로 날뛰다가는 가장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 남 수

《트럼프의 삽살개》—아베

남조선신문이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21일 《트럼프의 북침전쟁책동에 발벗고나서는 아베》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떠다니는 군사침략기지》로 불리우는 미해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조선반도주변수역에서 떠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언론에 의하면 미해군과 일본해상 《자위대》가 지난 16일부터 오끼나와주변수역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벌리고있으며 연습은 26일까지 계속된다고 사설은 밝혔다.

앞서 미공군 핵전략폭격기 《B-52》가 지난 8월 일본렬도상공을 횡단비행한 후 조선동해상공에서 일본항공 《자위대》 전투기와 합동훈련을 하였다고 사설은 폭로하였다.

사설은 또한 일본방위성이 래년에 개발을 시작할 계획인 대함순항미싸일에 지상공격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트럼프의 북침전쟁책동에 발벗고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단죄하였다.

일본군국주의부활의 막후에는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침전쟁책동을 일삼는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와 미국이 있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지난 6일 트럼프와 아베가 회담에서 북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압력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군국주의부활을 꿈꾸고있는 아베는 트럼프의 북침전쟁책동에 추종하며 입만 열면 대조선제재강화를 고아대고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아베가 《북의 핵, 미싸일위협대비》를 운운하며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침략무력강화를 합법화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아베가 《트럼프의 삽살개》로 조롱받는것도 다 리유가 있는것이라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파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핵전쟁으로서 일본인들과 전인류의 파멸을 불러오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기도와 그뒤에서 이를 부추기는 전쟁미치광이 트럼프, 제국주의 미국을 반대하는 길에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가 있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아베가 어리석게도 트럼프의 북침전쟁책동과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추종하며 주구노릇을 스스로 계속해나선다면 그 운명도 트럼프의 파멸적운명과 다르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단체들 괴뢰국회에 사회적참사특별법제정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21일 서울에 있는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국회가 사회적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국민이 바라는것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여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주모자를 처벌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국회》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10만 5 000여명이 서명한 문건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남조선로인들의 비참한 처지

20일 남조선 《KBS》방송이 최근 남조선에서 자식들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다가 사망하는 로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방송은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로인들의 죽음은 전지역적으로 사흘이 멀다하게 이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최근에는 광주와 부산, 충청북도 청주 등지에서 이러한 로인들이 숨진지 열흘, 보름 지어 두달만에 발견되였다고 방송은 밝혔다.

반드시 결산해야 할 대결광신자들의 죄악

남조선에서 보수적폐를 청산할데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보수 《정권》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앞잡이가 되여 정치모략과 부정부패를 비롯한 온갖 못된짓을 일삼은자들이 련속 덜미가 잡혀 감옥으로 끌려가고있다.

얼마전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불순한 정보모략기구인 심리전단이라는것을 내오고 그를 통해 비렬한 여론공작을 벌리였으며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을 만들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 괴뢰정보원의 음모군들이 구속되였다. 이어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괴뢰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반역통치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탕진한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였다. 최근에는 리명박역도의 지령에 따라 괴뢰군싸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등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정치개입범죄를 저지른 전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와 그 일당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였다.

보수패당의 집권시기 반역책동에 미쳐날뛰며 갖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하여 감옥밥을 먹게 된자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뛴자들이다.

김관진역도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자는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꽉 들어찬 악질대결광이다.

김관진은 리명박역도의 비호밑에 괴뢰국방부 장관자리에 올라앉던 시기 《국회》인사청문회장에서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거들며 그 누구를 《응징》하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라느니, 《밤잠이 다 오지 않는다.》느니 하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려 자기의 호전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 누구의 《도발》이 있을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고아대며 졸개들을 무장도발에로 공공연히 부추긴 위험한 전쟁광신자도 바로 김관진역도이다. 특히 역도는 민족의 대국상기간 인간의 초보적인 례의도 없이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리며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서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까지 저질렀다.

김관진역도는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에도 괴뢰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늙다리악녀의 손발노릇을 하면서 동족대결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이자는 쩍하면 괴뢰군부대들을 싸다니면서 그 무슨 《북의 도발이 예견》된다는 잠꼬대같은 수작을 늘어놓으며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라고 괴대를 돋구었다. 역도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북남대결분위기를 더욱 고취하고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어기면서 그야말로 미친개처럼 날뛰였다.

한편 미국상전들과 편질나게 꿍꿍이판을 벌려놓고 《북핵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이니,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빈틈없는 대북공조》니 하고 떠들어대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기승을 부리였는가 하면 남조선에 전쟁괴물 《싸드》를 끌어들이는데도 앞장섬으로써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다 낡아빠진 미국의 중고품 무장장비들을 비싼 값으로 사들이면서 제 돈주머니를 불구는데만 피눈이 되여 날뛴 부정부패의 왕초이며 괴뢰군내에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몽둥이규률이 지배하게 하여 윤일병타살사건을 빚어낸 살인마도 김관진역도이다.

실로 김관진역도가 동족대결의 일선에서 저지른 죄행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이렇게 동족을 적대시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대결미치광이 김관진역도는 끝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처박혔다.

이자가 천하역적인 리명박, 박근혜에게 매달려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종당에는 감옥귀신이 된것은 응당한것이다. 김관진역도의 비참한 말로는 민족을 등지고 온갖 못된짓을 저지른 대결광신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김관진역도를 비롯한 대결미치광이들을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고 하면서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킨 보수역적패당들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 제일먼저 청산되여야 할 적폐는 바로 반통일적폐이다. 지난 보수 《정권》시기 민족우에 군림하여 갖은 죄악을 저지른자들이 누구라 할것없이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 역적배들이라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에 의해 빚어진 반통일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괴뢰보수패당이 저지른 반통일죄악을 철저히 결산해야 한다.

리 홍 철

파멸을 면할수 없게 된 홍준표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가 특수활동비류용의혹에 휘말려 진땀을 빼고있다고 한다.

박근혜에 이어 리명박역도의 특수활동비를 통한 자금횡령사건들이 련이어 터져나오고 그 진상을 밝혀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함에 대한 각계층의 요구가 높아가는데 따라 괴뢰검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바빠난 홍준표는 18일 2년전에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며 특수활동비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은 자살을 앞두고 《경향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지사인 홍준표에게 1억원을 넘겨준데 대해 폭로하였다.

검찰이 홍준표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그는 2008년 《한나라당》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은 돈을 측에게 주군 하였는데 이를 모아 선거에 리용하였다고 하였었다.

이번에 홍준표는 특수활동비가 있었기에 아낄수 있었던 돈을 안해에게 가져다주었다고 말바꾸기를 하였다. 그리고는 오히려 검찰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이 류용하였다고 걸고들었다.

이 소식에 격분한 남조선의 한 시민단체가 홍준표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각계에서 역도에 대한 저주가 비발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친박핵심인 최경환의원에 이어 홍준표까지 특수활동비의혹에 휘말리자 자유한국당내부에서는 손을 도리가 없다는 식의 위기감이 번지고있다.》고 전하였다.

정치간상배, 인간추물 홍준표가 아무리 사생결단의 물밑이를 하며 보수부활의 꿈을 실현하려고 발광해도 력사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수 없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해체위기에 직면한 사이비정치집단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16일 남조선의 《국민의 당》대표 안철수가 그 무슨 《강연회》라는데 나타나 《합리적진보》와 《개혁적보수중심》을 운운하며 이를 위해 《바른정당》과 련대, 통합할 립장이라고 떠벌였다.

안철수는 두번씩이나 《대통령》선거에 나섰다가 패배의 고배를 마셨으면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도 권력야욕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는자이다.

이자는 온갖 권모술수로 또다시 《국민의 당》대표자리를 타고앉아 《폭주하는 정부를 견제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줴쳐대며 보수야당들과의 《국회공조》, 《정책련대》를 추구하여왔다.

이번에 그 무슨 《합리적진보》니, 《개혁적보수중심》이니 하는 수작들을 늘어놓은데는 다음해 괴뢰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자기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그는 《중도통합중심정당》,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당내에서 《바른정당》과의 선거련대나 《당 대 당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악을 써대고있다.

자기의 정략적목적실현을 위해 이자는 련대, 통합을 반대하는 당내 호남지역 중진의원들을 배제하려고까지 하고있다.

결국 《국민의 당》은 안철수파와 반대파사이의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것으로 하여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반대파는 《도처가 지진천지가 되였다. 사실상의 통합선언으로 국민의 당도 지진이다.》, 《바른정당과 합친다는것은 개혁련대가 아니라 정반대의 적폐련대로 바뀌여지는것이다.》고 하면서 안철수에게 정면도전해나서고있다.

호남계 중진의원들은 안철수의 일방적인 통합에 맞서 당내 별도조직인 정화개혁련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결심을 표명하였다.

안철수패들에 사이비정치집단, 정치폐물아집단, 《반국민당》, 《배신의 당》으로 남녘민심의 조롱을 받아온 《국민의 당》이 바야흐로 완전해체직전에 처한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심리적분당상태란 말까지 나온 국민의 당》, 《당내분쟁은 더욱 격화될수밖에 없다.》 등으로 평하고있다.

추악한 권력야심가, 민족반역자 안철수가 있는 한 《국민의 당》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반공화국압살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1일 백악관의 늙다리정신병자 트럼프는 각료회의라는데서 《북은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국제적인 테로행위를 지원》하는 《살인정권》이라는 날강도적인 궤변을 마구 늘어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테로지원국》재지정을 뻗쳐내 강행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한편 미재무성것들은 《핵 및 탄도레트캐발》에 대해 떠벌이며 우리에 대한 추가적인 단독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미재무장관이라는자는 《북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압박을 계속할것》이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화애호국가로서 이미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으며 주요국제반테로협약들에도 가입하여 테로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테로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패거리들이 우리 공화국에 또다시 《테로지원국》의 감투를 씌운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짓그리 말살하려는 또 하나의 국악무도한 반인륜적만행이며 우리에 대한 사상 최악의 정치적도발이다.

트럼프패거리들이 이번에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것은 미제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연장이며 그 최절정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할 범죄적기도밑에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피를 물고 날뛰여왔다. 력대적으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할것을 노리고 적용해온 각종 악명높은 제재법들은 《적성국무역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을 비롯하여 무려 수십건을 헤아린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가장 포악무도한 대조선정책을 들고나온 트럼프행정부는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권리행사를 유엔 《결의위반》으로, 《도발》로 터무니없이 겁고들면서 집권한지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유엔에서 불법무법의 야만적인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여러건이나 조작해냈다. 미국이 올해에 들어와 유엔에서 꾸며낸 《제재결의》들은 그 모두가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까지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사상 최악의 제재각본들이다.

트럼프패거리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국회와 재무성 등을 발동하여 추가제재, 단독제재놀음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제재봉쇄의 그물을 이중삼중으로 치고있다.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가로막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기어코 실현하자는것이 트럼프패거리들의 속심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아무리 제재소동에 기승을 부리여도 우리는 그에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제재속에서도 자력자강의 통음을 기운차게 울리며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비약과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원쑤들의 제재소동이 광란적으로 감행될수록 최후승리를 향한 우리의 진군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이 장엄한 현실앞에 질겁한 미제는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을 심산으로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어리석은 망동을 부리였다. 트럼프가 《최대의 압박정책실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악담을 늘어놓고 미국무성과 국회것들도 덩달아 《북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입을 모아 떠들어댄 사실은 이번 《테로지원국》재지정이 반공화국제재소동의 최절정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것은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트럼프패거리들이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는 위험한 기도가 깔려있다.

미국은 《테로지원국에는 힘으로 대항한다.》는것을 해외침략책동, 《반테로전》의 주요전략으로 내세우고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장애로 되는 나라들에 《테로지원국》딱지를 붙이고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합법적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이번에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것은 결코 스쳐넘길수 없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은 극히 무모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미제호전광들은 그 누구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압박》에 대해 떠들면서 조선동해에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련합해상훈련에 광분하였다. 미국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악명높은 핵항공모함들을 우리의 코앞에 집중투입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린것은 사상 류례없는 사태이다.

지금도 련합해상훈련에 동원되였던 미제의 방대한 침략무력은 조선반도주변의 해역들을 싸돌아치면서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여 《확장억제력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스텔스전투기, 무인공격기, 요격미싸일 등 각종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배비하려 하고있다. 핵전략폭격기의 조선반도출격회수도 무쌍 늘어나고있다.

이제 미제호전광들에게 필요한것은 북침핵전쟁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이다. 트럼프패거리들이 테로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선택》의 칼에 나서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이번 폭거에 대해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북미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될수 있다.》는 평이 나돌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감히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트럼프패당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과 포악무도한 대조선침략기도를 세계의 면전에서 숨김없이 드러내보이였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으며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철리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새겨주고있다.

트럼프가 또 한차례의 선전포고와 같은 특대형도발을 해온 이상 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감히 《살인정권》으로 매도하며 《테로지원국》재지정이라는 폭거를 서슴없이 감행한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와 깡패제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심과 멸적의 기상은 하늘을 찌르며 무섭게 치솟고있다.

트럼프는 우리를 해치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미국이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대조선제재압박소동과 강도적인 《테로지원국》재지정조치를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은 저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도발소동이 어떤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온 정 철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와 깡패제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

불로 다스려야 할 두발가진 승냥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또다시 악담질을 해대면서 《테로지원국》재지정이라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았다.

날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맨접한 나머지 우리와 인연도 없는 《테로지원국》이라는 갑투까지 들고나온것을 보면 산송장인 트럼프의 심리상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무시무시한 총기류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악이 살판치는 지옥도 미국이고 세계를 류혈참극이 지속되는 《반테로전》의 란무장으로 전락시킨 테로의 왕국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테로기지, 침략기지들을 만들어놓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총포탄과 미싸일을 발사하는 범죄적만행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미국놈들은 인간이기를 그만둔 추악한 악귀들이며 두발가진 승냥이들이다. 이런 놈들에게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으며 사정을 봐줄것도 없다.

다시는 악담질을 못하게 불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킬 어리석은 개꿈을 꾸는 미국놈들을 속시원히 탐새겨 혁명무력의 본때를 보이고싶은것이 우리 로농적위군 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가증스러운 군사적압박과 제재책동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절대병기까지 보유한 핵강국, 로케트강국이 되였다.

지금 우리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줄 모르고 설쳐대는 늙다리 트럼프놈을 족랑쳐버리겠다는 멸적의 의지를 안고 훈련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참다운 인민의 삶이 꽃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해보려고 무엄하게 혀를 나불거리며 지랄발광하는것들을 우리 혁명의 총대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농적위군 대원 리 기 섭

콩크리트혼합물에 처넣을것이다

어제는 우리 공화국을 《완전파괴》하고 우리 인민을 절멸시키겠다고 광태를 부리던 트럼프가 오늘은 또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하니 끓어오르는 격분을 누를수 없다.

이 세상에 미국보다 더한 테로왕초가 어디에 있기에 누구에게 감히 그런 모자를 씌운단 말인가. 깡패국가인 미국에 딱 들어맞는 테로모자를 존엄높은 정화애호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씌운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친개무리가 아니라면 이런 발작적인 지랄증세를 보일수 없다.

미국것들이 이번에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무슨 추가제재를 들고나왔다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다.

트럼프가 또 한차례의 선전포고와 같은 특대형도발을 해온 이상 그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대한 힘을 아직도 모르고 압살하겠다고 날뛰는 놈들을 몽땅 끌어다가 콩크리트혼합물에 처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욱욱 벼르고 있다.

트럼프놈을 아예 콩크리트혼합물로 매닥질해버릴 순간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의 늙다리전쟁미치광이는 자기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헤지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치솟는 증오와 분노,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그 기세로 콩크리트침목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올해전투를 로력적성과로 빛나게 결속하겠다.

승호콩크리트침목공장 지배인 김 철 호

트럼프패거리의 정수리에 무쇠마치벼락을

까마귀는 언제 봐야 송장파먹은 까욱소리만 낸다는 말이 미국때문에 생겨난것 같다. 트럼프가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걸고들었는데 꼭 흉측스러운 까마귀소리이다.

항상 보면 뒤가 켕기는자들이 남을 걸고든다. 세계최악의 테로원흉, 특등깡패국가의 우두머리 트럼프가 제 치지도 모르고 존엄높은 정화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마구 걸고들고있으니 그 더러운 주둥이에 강철정대를 처박아넣는것이 상책이다.

트럼프같은 늙다리가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한다고 돌아치고있으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팎으로 망조가 들수밖에 없는것이다.

개꼬리 삼년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양키족속들의 파렴치성은 갈데 없다.

미국은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며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국이 골백번 무릎꿇고 사죄해도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한과 직성이 풀리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미국놈들이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걸어왔다.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는 트럼프패거리들을 가차없이 족랑쳐버려야 한다.

지금 류경건설관리국안의 돌격대원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소동에 미쳐날뛰는 미국놈들을 콩크리트혼합물속에 모조리 처박아 매장시켜버리겠다고 우벼르고있다.

《깡패국가 미국의 사등뼈를 함마로 찍어버리자.》, 이것이 우리 돌격대원들의 분노의 함성이다.

우리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필승의 기치로 추켜들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으로써 악의 제국의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겠다.

류경건설관리국 부참모장 김 성 남

초보적인 지적능력부터 키우라

정신병자 트럼프가 이번에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살인정권》으로 매도하며 《테로지원국》에 지정이라는 죽기를 서슴없이 감행한데 대해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깡패국가, 불량배국가, 테로국가의 왕초로 세상에 락인된 미국이 너절한 제고도 못 찾는 주제에 감히 참다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겠다고 놀아대는 꼴을 보면 정말 가소롭다. 온갖 회유와 기만도, 군사적방법도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케케묵은 《테로지원국》감투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우리를 어째보려는 트럼프의 광태에 앙천대소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어림없다. 트럼프가 제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우리는 동네 똥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어린 때부터 자기를 배워주는 선생을 마구 구타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불망나니였고 돈많은 애비의 그늘밑에서 사기와 협잡밖에 익힌것이 없는 소문난 부랑아가 주제의 사회주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요설질인가.

깡패국가인 미국에는 테로가 생존수단으로 되지만 우리 공화국은 그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것을 트럼프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치무능아인 트럼프는 이제라도 초보적인 지적능력부터 키우는것이 좋을것이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경공업대학 교무과장 김 성 우

두엄더미에 처박는 심정으로

전쟁미치광이들을 삽과 쇠스랑으로 모조리 찍어 두엄더미에 처박자.

지금 우리 전체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격멸의 보복의지로 펄펄 끓어번지고있다.

어제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다 못해 우리 공화국인구를 절멸시키겠다는 전대미문의 미친 망발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우리 나라에 《테로지원국》감투를 씌워놓는 죽기를 저질렀다. 백악관에 들어앉자마자 전쟁미치광이, 정치이단아로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락인이 찍힌 트럼프의 정신이상증세가 이제는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친개의 발작증세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우리 농장원들의 손에손에 쥐여진 농기구들이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있다.

감히 어디다 대고 《테로지원국》이라는 미친개나발을 불어대고있는가.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이번에 이 정신병자가 우리 공화국을 《살인정권》으로 악랄하게 중상모독한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세계도처에서 국가전복과 살인, 파괴, 략탈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최대의 국제테로원흉으로 악명을 떨치는 악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의 《붕괴》가 시간문제라고 길길이 날뛰어도 우리의 사회주의는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국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 우리는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미국의 이번 행태는 우리 전체 농장원들에게 우리 공화국이 지닌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자부심과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만 더해주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과 원쑤격멸의 기개를 백배해줄뿐이다.

앞으로 우리는 트럼프패당의 심장을 뚫을 《총탄》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는 심정으로 농업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다음해농사에서도 장훈을 부르겠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 영 삼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사상의 《자유》는 기만이다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들은 그 실현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것이 바로 사상의 《자유》타령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입만 벌리면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있다. 언론들까지 동원하여 해당 나라들에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느니, 《폐쇄국가》라느니 하며 마치도 자본주의사회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것처럼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완전한 허위이며 기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상의 〈자유〉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누르고 부르죠아반동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책동을 〈자유〉의 간판으로 분식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구호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은 계급적성격을 띠며 지배계급은 자기의 사상으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분렬되여있고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할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각이한 사상이 존재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놓고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이고있다.

하지만 독점재벌들과 그 하수인들인 반동통치배들이 출판물, 통신, 방송을 비롯한 선전수단들과 교육수단들을 장악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의 자유로운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타령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누르고 부르죠아반동사상을 퍼뜨리기 위한 기만선전이다.

원래 자본주의사회는 그 반동성과 반인민성으로 하여 진보적인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겉으로는 어려가지 사조들이 허용되는것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범람하고있는 각양각색의 사조들은 다 부르죠아사상의 각이한 형태와 표현들에 지나지 않는다.

반동통치계급은 자본주의사회를 《자유의 표본》, 《민주주의사회》로 미화분식하기 위해 진보적인 사상을 일정하게 허용하는척 하다가도 그것이 저들의 통치에 조금이라도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차없이 탄압한다.

지난 세기 중엽 《자유세계의 표본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반공깜빠니야소동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당시 사회주의가 전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동정심이 높아지는데 위구심을 가진 미국의 반동통치배들은 《공산주의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매카시즘》광풍을 불어왔다.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사상경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빨갱이》딱지를 붙이고 박해를 가하였다.

미국영화계의 명배우이며 희극영화의 왕으로 소문났던 챠플린도 독점재벌들을 풍자한 영화들을 만들어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신봉자로 몰려 탄압대상으로 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상탄압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국민들에 대한 사상탄압을 권력기관들의 주요기능으로 부여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조작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구속억압하고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강제주입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이때문에 일본의 청소년들은 민족배타주의, 군국주의사상에 물젖은 정신적기형아로 자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책동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사상주입》이라고 비난하고있지만 그것은 사회주의를 헐뜯기 위한 황당한 날조이며 부르죠아반동사상선전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걸고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썩어빠진 생활풍조를 전파시키고있다. 자본주의현실을 외곡미화하고 색정적이며 변태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작품과 편집물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사회에 류포시키고있다. 이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대중의 건전한 사고력이 마비되여가고 사람들이 자본의 지배에 순종하는 노예로, 무례타락한 정신적불구자, 인간추물로 전락되여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상탄압이며 반동사상을 강요하는 범죄적인 사상주입행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타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구호이다.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으며 매개 나라마다 자기의 사상과 고유한 문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며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들이먹이려 하고있다.

해당 나라들에 자본주의사상문화가 지배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밑에 얽어매놓자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목적실현을 위해 정보모략기구들을 동원하거나 《협조》와 《교류》 등 여러가지 공간들과 통로들을 리용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침투시키고있다. 그들은 경제적부대조건까지 내걸고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그에 순응하지 않을 때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는 《암흑사회》라는 갑투를 씌우고있다.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대중적인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나라들에 대한 혼시와 개입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공연히 다른 나라들에 정치, 경제, 외교적압력을 가하고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내정간섭을 일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타령의 본질을 헤뜯어보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하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의 비극적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불어대는 사상의 《자유》타령에 각성있게 대하지 못하고 사상사업을 소홀히 하였다. 이것은 사회전반에 부르죠아사상이 발붙일 틈을 주었고 이 기회를 리용하여 반동선전물들과 색정적이고 부패한 영화, 음악들이 대대적으로 쏟아들어갔다. 사람들속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고 사상정신적와해와 변질현상이 나타났다. 부르죠아사상에 푹 젖어 그를 찬양하며 《자유세계》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동경하였다. 종당에는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되고말았다.

부르죠아반동사상의 전파를 막는것은 자주적발전과 진보를 바라는 나라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방송을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선전공세를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방송선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진보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들을 설치하고 밤낮없이 불어대고있다. 현실은 해당 나라들이 자본주의방송의 해독성에 대해 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부르죠아반동사상문화선전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이 불순선전물들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쉬가 쓸고 자본주의를 동경하게 된다.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부르죠아반동사상전파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자유화바람이 들어올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타령을 짓부시고 부르죠아사상의 전파를 막는것은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일이다.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타령의 기만성과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알고 그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리 학 남

국제적인 규탄을 받고있는 미국

로씨아에서

로씨아가 16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수리아에서의 《화학무기공격》과 관련하여 미국이 제기한 부당한 결의안을 반대하였다.

화학무기공격과 관련한 책임을 수리아에 전가하려는 목적밑에 미국이 꾸며낸 결의안은 로씨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로씨아는 수리아문제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불순한 목적을 노린 결의안의 채택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있다.

이란에서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씨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21일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준동하던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를 격멸하기 위한 싸움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된데 대해 밝혔다.

그는 《이슬람교국가》를 다 승한것은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된다고 언급하고 이것은 중동에 수많은 테로단체들을 만들어내고 지역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으면서 내전을 격화시키려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에서

캄보쟈수상 훈 센이 19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책동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은 캄보쟈최고재판소가 정부전복을 기도하던 캄보쟈구국당을 해산할것을 결정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이 나라 정부를 반대하는 조치로서 원조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그 어떤 원조중단도 자기 나라 정부에 영향을 주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캄보쟈는 미국의 원조중지조치를 《환영》한다고 조소하였다.

수리아에서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이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이 《이슬람교국가》를 반대하는 수리아정부군의 반테로작전을 방해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슬람교국가》의 테로분자들이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이 장악하고있는 지역들에서 수리아군진지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반테로련합》은 요원들과 군용기 등을 리용하여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수리아군이 전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끈질기게 책동하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러한 시도들이 반테로투쟁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유엔이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의 이러한 범죄행위들과 대량학살을 중지시키는데 협력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에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가 18일 미국의 부당한 압력책동에 경고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무성이 워싱톤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사무소를 폐쇄할것이라고 통보해온데 대해 밝히면서 만일 그것이 현실로 된다면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현 미행정부와의 모든 통신을 단절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제자주위업수행의 한길에서 맺어진 영원한 전우

우리 인민은 꾸바혁명의 락철한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꾸바당과 정부, 인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자랑찬 전변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지구의 서반구에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친 혁명투사이다.

그는 1947년부터 1952년까지 국내외에서 독재정권의 반인민적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1953년 7월 반독재사상을 가진 165명의 남녀청년학생들과 함께 싼띠아고 데 꾸바시에 있는 바띠스따독재정권의 군사요충지의 하나인 몬까다병영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여 무장투쟁의 봉화를 지피였다. 1956년 12월 메히꼬에서 82명의 무장인원들과 함께 《그란마》호를 타고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으며 그후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에 근거지를 두고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그는 1959년 1월 마침내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후 그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 봉쇄책동속에서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려워지고 미제의 만꾸바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될 때에도 굴함없이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한 불굴의 혁명투사이다. 그는 당시 꾸바에서는 혁명도 사회주의도 파괴되지 않을것이며 공산당이 령도적역할을 계속 수행할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자본주의적이고 부르죠아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군 하였다. 그 시련의 나날 조선, 꾸바 두 나라는 사회주의 한전호에 굳게 서있었으며 두 당, 두 정부,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오래전부터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혁명적인 동지적관계를 맺으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해주시였다. 그로 하여 조선과 꾸바는 대륙과 대양을 사이에 두고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에 멀리 떨어져있으나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공동보조를 취하여왔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깨겯고 투쟁하여왔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조선꾸바친선과 사회주의위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리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여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적꾸바인민이 마을 까스뜨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에서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결의가 191개 성원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반인륜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결히 투쟁해나가는 꾸바인민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형제적꾸바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나갈것이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날로 격화되는 로미마찰

얼마전 미국이 로씨야의 39개 군수산업체들과 기관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7월말 미국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8월초에 트럼프가 승인한 대로씨야제재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국가회의의 한 고위인물은 미국이 자기 나라에 대해 나쁜짓을 하려고 애쓰면서 엄중한 길에 들어서고있다고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정세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로미사이의 마찰을 더한층 고조시킬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최근년간 외교적마찰로 불거진 두 나라 관계는 그야말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의 공방전으로 번져지고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앉은 후 많은 사람들은 로미관계가 완화될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억측에 불과한것이였다.

외교분야뿐아니라 군사분야에서 빚어지고있는 로미마찰은 심각한 문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로씨야의 국경가까이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로씨야가 군사력강화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있다. 이밖에도 미국과 로씨야사이에는 핵공개방에 관한 조약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있다.

1992년에 조인된 이 조약에는 미국, 로씨야를 비롯한 수십개의 나라들이 가입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체약국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에 대해 비무장방식으로 공중정찰을 진행하여 서로가 무기통제에 관한 국제적조약들을 성실히 리행하는가를 조사할수 있다. 한마디로 체약국들사이에 무력증강과 충돌위험을 감시하면서 호상신뢰를 강화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로씨야가 이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자국령공에 대한 로씨야군용기의 비행을 금지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로씨야가 이전에 자국령공에 대한 미군비행기의 비행을 제한한것이 그 발단으로 되였다.

로씨야가 이에 반발해나서고있다. 로씨야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감시를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직까지 서로가 자기의 립장을 굽히지 않는것으로 하여 이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있다.

얼마전에도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과 관련하여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 해도 로씨야는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이뿐이 아니다. 요즘 미국내에서는 로씨야의 군사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자주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로씨야무기들의 《우월성》에 대해 요란스레 선전하였다. 일부 출판물들은 로씨야의 최신형반함미싸일 《찌르꼰》에 대해 벅적 떠들어대면서 지서 전략무기현대화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로씨야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고있다. 전략적리익을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로씨야는 자국무력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군사적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다.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얼마전에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로씨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양보하지 않을것이다, 침략행동에 대처하여 로씨야는 그에 대등한 반격을 가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월로진은 자기 나라에 대한 가증되는 제재책동을 놓고 미국을 신랄히 야유조소하였다. 그는 미국이 대로씨야제재를 실시한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면서 제재로 자기 나라는 강해지기만 하였다고 비꼬았다.

현실은 로미관계의 모순과 갈등이 전반적부문에로 확대되고있을뿐아니라 최악의 상태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대결을 추구하는 조건에서 량측사이의 마찰과 대결은 더욱 격화될것이라는것이 언론들의 정가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유엔환경계획 세계적인 환경오염실태에 우려

유엔환경계획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인 환경오염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공기오염에 의해 650만명이 목숨을 잃고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의 오물장들은 6 400만명의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있다고 한다.

특히 해마다 60만명의 어린이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중독으로 정상적인 뇌발육에 지장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보고서는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새 천년기개발목표를 달성할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71186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